■ 민족문화연구 제88호(2020.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91-496.
http://doi.org/10.17948/kcs.2020..88.491

【해외한국학자료 소개】

『관감목록(關甘目錄)』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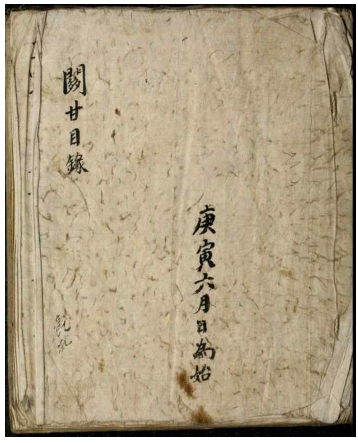
김효경(金孝京)*

1. 정의

1890년(고종 27) 6월 15일부터 1891년(고종 28) 9월 15일까지 함경도 감영에서 발송한 관, 감결 등의 문서를 정리한 책으로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이다.

2. 편저자 사항

표지에는 "관감목록(關甘目錄)", "경인육월일위시(庚寅六月日爲始)"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도 편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내용을 살펴볼 때 함경도 감영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감목록(關甘目錄)』 표지면.

3.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함경도 감영에서 1890년 6월 15일부터 다음해인 1891년 9월 15일까지 소속 군현 즉 삼수(三水), 갑산(甲山),

*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함흥(咸興), 영흥(永興), 단천(端川), 고원(高原), 정평(定平), 북청(北靑), 덕원(德源), 안변(安邊), 문천(文川), 장진(長津), 홍원(洪原), 이원(利原), 길주(吉州), 무산(茂山), 경흥(慶興), 회양(淮陽), 원산(元山) 등의 지역과 예하 소속 관원에게 보낸 문서를 요약해서 날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종류는 표지의 제목에서도 나타내고 있듯이, 관감 즉 관(關)과 감결(甘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 전령(傳令), 첩(帖), 완문(完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관과 감결 중에서는 감결의 발급 비중이 높다.

『관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는 모두 관문서(官文書)이다. 관문서란 작성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 관청 또는 그에 속한 관리들로서 그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관문서는 그 문서의 성격에 따라 다시 교지(敎旨)·교령류(敎令類), 상소(上疏)·청원류(請願類), 이문류(移文類), 증빙류(證憑類)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지·교령류에는 고신(告身)·차첩(差帖)·홍패(紅牌)·백패(白牌)·녹패(祿牌)·유지(有旨)·유서(諭書)·봉서(封書)·녹권(錄券)·사패(賜牌) 등, 상소·청원류에는 장계(狀啓)와 정사(呈辭), 이문류에는 감결·관·전령·첩정(牒呈)·서목(書目)·고목(告目)·첩 등, 마지막으로 증빙류에는 입안(立案)·준호구(准戶口)·자문(尺文) 등의 문서들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서 관과 감결은 이문류에 분류되는 문서이다.

관은 동등 또는 동등 이하의 관서에 발송하는 명령서로 주로 관련 업무를 상고(上考)하거나 관원을 차정(差定)하기 위해 발급되었으며, 때로는 관서끼리 협조요청이나 고지(告知)의 용도로도 발급되었다. 일반적으로 관은 아문(衙門) 사이나 지방의 수령 사이를 소통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앙아문과 지방아문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책에서 관을 발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배인(配人)을 방송(放送)하는 일·관원들의 하비(下批)에 관한 일·각종 물품의 상납에 관한 일·각종 행사 시설물 설치 및 개수에 관한 일·관원을 차정하는 일·인산(因山) 길일(吉日)을 택일하는 일·이재민에게 휼전을 지급하는 일·각종 금지사항 전달하는 일 등 다양하다.

감결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발송하는 문서의 하나이다. 주로 관찰사나 암행어사가 수령에게, 그리고 대장(大將) 등과 같이 군사통솔권이 있는

관리가 예하의 관원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할 일이 있을 때, 물품의 출급・독촉이나 인원 차역을 지시하거나 죄인의 압송, 대민 고시 및 선무, 도적의 검속을 지시하는 경우, 또 자연재해 시 진휼정책의 방침과 시행을 고지・지시하는 경우 등에 발급되었다. 감결 중에는 "이시호착상사(李時浩捉上事)"・"향인장의숙이원봉최태진이수정평사(鄕人張義淑李元鳳崔太鎭移囚定平事)"・"백남규이수북청부거지의송위제상사사(白南珪移囚北靑府渠之議送僞題上使事)"・"양기화엄수기모지복독치사위절엄핵사(梁基化嚴囚其母之服毒致死委折嚴覈事)" 등과 같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색출하는 일, 자살 등에 있어서 특별이 보안이 필요하거나 혹은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지시 등은 '비감(祕甘)'이라 표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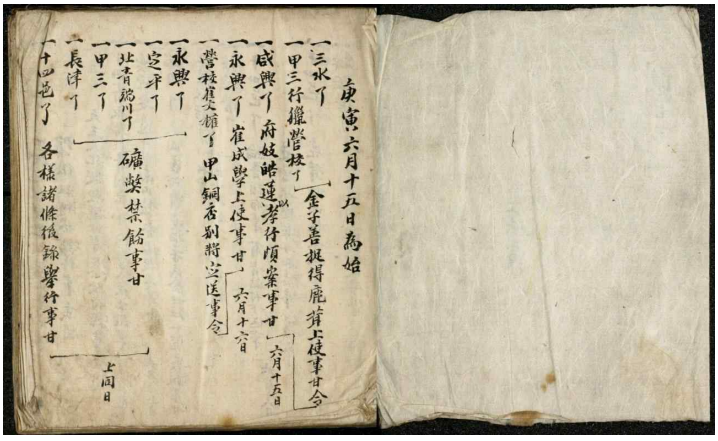
전령은 상급관원이 하급관원이나 일반 백성에게 발급한 문서로 특정인을 어떤 직책에 임명하거나 혹은 각종 명령을 내릴 때 주로 발급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전령의 발급 실례를 보면, 갑산 동점(銅店)을 별장(別將)으로 임명하는 것, 정자각(丁字閣) 누수의 수리에 대한 것, 이재민에 대해 영휼전(營恤典)을 남문(南門) 밖에서 분급(分給)하는 것, 교목(橋木) 운반하는 것, 잡기 금단, 염세(鹽稅)를 출급(出給)하는 것, 생진(生進)과 출신(出身)에 대해서 유가(遊街) 금단하는 건, 호랑이 뼈로 기름 만든 것을 올려 보내는 것, 이원(利原)에서 봉답조(捧畓條)로 받은 돈을 각 참(站)에 분급하는 것 등에 대한 사항이다. 물론 전령 중에는 "점민김덕호등사인착상사(店民金德浩等四人捉上事)", "포병방착수사(捕兵房捉囚事)"와 같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 감결을 발급해야 하는데 전령을 발송한 사례도 보인다.

첩은 크게 임명장과 명령서로 구분되는데, 임명장으로서의 첩은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官)이나 향리(鄕吏)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그리고 명령서로서의 첩은 각 관서의 장들이 하급관리나 속관들에게 공무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릴 경우에 발급하였다. 첩이 사용된 실례를 보면, 의릉(義陵, 태조의 증조부모인 도조 내외의 릉, 함흥 소재) 봉사를 동지(冬至) 제관으로 임명하는 것, 진전릉(眞殿陵) 봉사를 추석 제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경우이다. 첩 중에는 하체(下帖)도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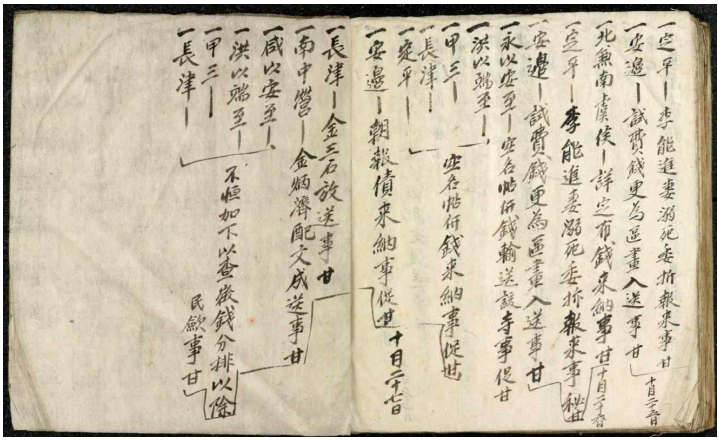
하체는 원래 관아에서 일꾼이나 상인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줄 때 작성해 주었던 문서를 말하나 수령이 향약 집강(執綱) 혹은 향교 재임(齋任) 등에게 훈유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도 사용되었다. 하체가 사용된 실례를 보면 재임 권점(圈點) 차출에 대한 것과 의릉 봉사에게 정자각 누수 건에 대해 수리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와, 도시(都試) 도청관(都廳官)을 임명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첩과 하체가 사용된 실례를 보면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같은 사안을 대해서 첩을 발급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체로 발급한 경우도 있다.

완문이 발급된 사례는 1건이 있는데, 홍주후와 임창업의 산송과 관련된 사항(洪疇厚與林昌業山訟事)이다. 일반적으로 완문은 관(官)이나 향교와 종중(宗中)과 같은 단체에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혹은 특전을 부여하고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데, '홍주후와 임창업의 산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만 적혀있어서, 구체적으로 완문을 발급한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문서의 작성방식은 "삼수(三水)" 또는 "양도찰방(兩都察訪)"과 같이 해당 고을 또는 해단 관원을 표기하고 "료(了)"를 붙이고 이어 문서의 요지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문서 이름을 "本官防川遺缺修築事甘"과 같이 감결이면 '감', 관은 '관', 하체는 '하체', 첩은 '첩', 완문은 '완문'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관여첩(關與帖)', '감여이(甘與移)', '감여령(甘與令)'과 같이 두 개의 관문서가 함께 기록된 경우도 종종 있다.



『관감목록』 첫 면.



『관감목록』 마지막 면.

4. 자료 가치

우선 이 자료를 통해서 지방 감영의 관문서 정리방식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론서에 언급된 각 관문서에 대한 정의보다 이 책에 수록된 실례를 통해서 훨씬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관문서를 발급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각 관문서들의 행이체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해당 각 관문서들은 분명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방송' 등과 같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관을 발급하기도 하고 혹은 감결을 발급하기도 하였으며, 범인을 체포하는 사안에 대해서 감결을 발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령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관과 전령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관문서끼리의 차별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도 향후 문서사에 있어서 관문서의 성격을 파악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문보미, 「조선시대 관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9.

윤인수, 「조선시대 감결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고문서—』, 전북대 박물관, 1998.